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계엄군이 여의도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스스



4일 새벽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스

# “심야 선포→포고령→군 투입→국회 의결→계엄 해제”

## ‘초유 비상계엄’…긴박했던 6시간

윤 “중북 반국가세력 일거에 척결” 포고령 1호 발표·계엄군 국회 진입 ‘해제요구안’ 재석 190인 전원 찬성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밤 국회를 ‘중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후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3일 밤 10시23분=긴급 담화로 전격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3분께 예고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출입기자단은 물론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권의 지속되는 정부 각료 탄핵과 단독 입법, 내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지적하며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현재 국회의 상황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윤 대통령 측근 인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한다.

●4일 오전 0시27분=무장계엄군 국회 진입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국회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내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엄군은 4일 오전 0시27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이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대표실 외부 유리창을 깨고 진입

하자 당직자들은 소화기를 분사하며 막아섰다.

계엄군은 오전 0시41분께 로텐더홀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했다.

●4일 오전 1시2분=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오전 1시2분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30여분 만이었다. 더불어민주당 153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 각 1명, 무소속 2명과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18명이 참여했고 반대표는 없었다.

표결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당대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뒤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계엄군은 오전 1시18분 청사 밖으로 물러났다.

## 12·3 비상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 시간대별 상황

12월 3일 오후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 생중계	
오후 10시24분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민주당, 국회로 의원들 긴급소집
오후 10시44분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이재명 “불법적 비상계엄 무효”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문 통제	
오후 11시25분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	
오후 11시27분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	
12월 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기자회견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27분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국회, 의결 정족수 충족시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진행
오전 0시41분	계엄군, 국회 당대표실 유리창 파손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48분		국회 본회의 시작
오전 1시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2분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계엄선포 무효”
오전 1시18분	계엄군, 국회 경내 철수	
오전 4시30분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	

●4일 오전 4시30분=국무회의, 계엄 해제

공을 다시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침묵하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오전 4시를 넘기는 시점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6분께 추가 담화

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계엄 선포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 공지 없이 카메라 앞에서 입장문을 읽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4시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군은 4시22분부로 계엄사무에 투입된 병력을 부대로 복귀시켰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무장계엄군 280여명 경내 진입… 헬기 24회 동원”

### 국회사무처, 군 진입 CCTV 공개 물리력 행사해 국회의사당 난입

국회사무처는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상황을 브리핑하고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방부는 전날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 오전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당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오전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며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4일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창문을 파손해 진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밤은 유독 길었지만 국민도 국회도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준 하루였다”며 “이제 다시 새로운 하루다. 지금의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생각”이라며 “국회 본회의 등 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육군 블랙호크로 추정되는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뉴스스

급한 현안을 제외한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한치 흐트러짐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